

發刊辭



歷史는 우리와 함께 살아 왔고 永遠히 살아간다. 歲月을 붙잡아 둘 수 없듯이 人生도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살아온 지난날 우리 人生의 殘骸는 이 歷史의 香氣 속에 永遠히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宗史가 始作된지 二千年 그동안 우리 祖上들은 숭한 國難과 民族의 위난을 겪어 왔다. 그러면서도 우리 先祖님들은 매양 강인한 民族意識과 억센 저항 精神 그리고 위대한 창조력을 발휘하여 三國統一의 거룩한 聖業을 이룩하였고 新羅千年의 찬란한 文化를 꽃피웠으며 現世에 이르기까지 國家와 民族을 위해 赫赫한 功勳을 남기고 있다. 이분들이 살아온 참된모습을 詳細하게 살펴볼수있는 宗族史가 없어 後孫으로서 道理를 다 하지 못함을 느끼고 本事業을 着手하여 著名宗親을 編纂委員으로 모시고 이 事業의 基本을 잡아주기를 부탁했다. 그리하여 先代는 三國史記 高麗史 李朝實錄 韓國史大系 文獻備考등의 正史에서 해당되는 部分을 拔萃하고 各門中에서 提出된 文獻등을 取捨選擇키로 했으며 現代는 編纂上의 形편을 감안하고 叙上한 動機에 부합되는 宗親으로 하되 基準을 두기로 하였던 것이다. 本世蹟錄에 収録된 現代宗親 壹千貳百名은 크고 적고 간에 또 學識이나 經歷이나 그 位階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혹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모두 先代의 遺訓에 사는 위대한 시알들로 다음의 선정기준에 의거했다. ① 國家的인 功績과 宗門的인 功績을 살폈다. ② 적은것을 크게쓰며 적은데서 큰데로 나간 克己의 宗親을 살폈다. ③ 들난 巨木과 더불어 本事業의 動機에 비취 본 未來의 宗親들이나 옛과 오늘을 있는 架橋的 人物을 살폈다. 이 모든것을 國家와 宗門에 끼친 人文에의 영향에서 검토하고 人格的인 基本에서 살피되 人格의 基本을 ① 愛國愛族 宗族의 友誼와 協同 ② 孝誠과 尙書접하 ③ 民族的 人格完成에의 끊임없는 努力으로 하였으며 現在 長次官級에 限해서 眞髓를 담도록 努力하여 客觀的인 事實에 忠實하되 그 분에 對한 타의 評이나 의견을 옮겨놓는 方向으로 처리했고 其他宗親은 道別가나다 順으로 한페이지에 두분과사진과 경력을 揭載하였다. 어떤 宗親은 經歷이나 功績을 밝히기를 사양하여 부득불 餘白을 두었으며 또 어떤분은 사진을 내지않어 이름과 경력만을 밝혀두는데 그쳤다. 國事에 바쁜 틈을 내어 3년에 걸쳐 이렇게라도 내놓으니 흥가분하며 여러宗親들의 與望에 빛을 갈게되는듯 스스로 대견하기도하다. 다만 언젠가는 더욱 잘 보완하여 부끄럽지않은 宗族史를 엮을날이 있을것을 믿으면서 이 世蹟錄에 담은 精神과 事實들이 우리모두들 더욱 빛나게하고 他를 이끌며 先代의 위대한 유훈을 繼承하는 한가닥의 물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나를 도와 끝까지 完刊의 빛을 보게한 執行部 여러분과 本會顧問 編纂委員 指導委員 그리고 監修委員에게 감사해 마지않는다.

1978年 6月 30日

慶州金氏世蹟錄編纂委員會

委員長 金鐸河

序 文

이번에 慶州金氏世蹟錄을 發行하게 된 것은 宗親여러분의 뜻과 誠意를 한데 모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生覺할 때 매우 기쁜 일이며 우리 門中의 一代快事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겨레의 傳統的인 美風良俗과 價值觀을 再定立하는 한 史料를 整理 提供 한다는 意味에서 社會的으로도 큰 뜻을 지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世蹟錄 속에는 우리 先祖님들의 빛나는 열과 現代政治文化經濟社會 各 分野에서 赫赫한 業績을 남기고 있는 著名宗親 壹千余名이 収録되어 우리들에게 훌륭한 敎訓과 覺醒을 일깨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世蹟錄을 發行한 것은 빛나는 祖上들의 遺德이나 著名宗親의 業績을 빌어 어떤 社會的 地位를 높이려 한다거나 社會的 結束으로 무슨 利得을 노리려 하는 次元낮은 生覺에서가 아니라 훌륭한 先祖님들의 遺德을 오늘에 되새겨 스스로 채찍질하며 宗親相互親睦과 相扶相助의 紐帶를 더욱 다져나가는데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溫故知新함으로서 오늘의 發展을 促進시키고 옛것을 거울삼아 오늘의 나를 省察한다는 것은 그만큼 價値있는 일이요 必要한 것이며 같은 피를 나눈 宗族間의 情誼를 두텁게 한다는 것은 人間으로서 마땅한 道理인 同時에 나아가 民族의 總和를 다지는 原動力口實을 하게 된다는 點에서도 몇 몇하고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先祖들의 훌륭한 人品과 빛나는 業績을 살피고 그런분을 祖上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後孫인 우리들에게 그만큼 矜持와 勇氣와 自制性を 일깨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後孫인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祖上들의 陰德이요 遺德일 것입니다. 우리들 慶州金氏는 新羅 千年의 王位寶座을 빛내고 現世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賢人烈士를 輩出하여 民族史에 不滅의 光榮을 綿綿히 이어온 名門巨族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社會 各界 各層에서 國家와 民族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宗親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宗親여러분들에게 名門巨族의 後裔라는 矜持와 함께 그런 宗門의 名譽를 위해 서로 周圍로부터 尊敬받고 國家民族을 爲해 有別한 사람이 되겠다는 남다른 奮發心을 불러 일으켜 주리라 믿습니다. 바라건데 이번의 快事가 우리 宗中中興의 새로운 契機가 되어 그 옛날 先祖님들이 남기신 훌륭한 遺德과 國家社會에 貢獻한 빛나는 業績을 더욱 빛낼 수 있는 後孫들이 나올 수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國事에 바쁘심에도 世蹟錄發行에 心血을 傾注하여 오늘의 快事를 이룩한 國會議員 鐸河宗親 常任副委員長 教興宗親 그리고 本編纂委員會의 任員여러분에게 深深的 謝意를 표하며 執行部 여러宗親의 勞苦를 致辭하는 바입니다.



1978年 6月 30日

慶州金氏宗親會

會長 一煥